

## 박물관자료 전산화를 위한 분류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for Computerizing Museum Data

정은숙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동열 :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Jung, Eun-Suk :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Ewha Womans Univ.  
Jeong, Dong Youl : Prof.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Ewha Womans Univ.

본 연구는 박물관자료의 특성과 관련하여 분류상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박물관의 자료분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산화를 위한 박물관자료의 분류 방안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박물관자료 전산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체계적이고 통일성있는 분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두었다. 박물관은 중요한 문화유산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하여 전시를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예술, 역사, 미술, 과학, 기술 등 모든 분야를 통하여 인류와 문화에 관한 교육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료를 연구자나 관리자 뿐 아니라 일반대중이 보다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

별화된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인 차원의 전산화가 필수적이며, 전산화의 기본작업은 우선 정확하고 완벽한 분류체계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자료 분류는 자료의 보존, 관리를 위한 기록을 작성하는 일과 그것의 활용을 위한 기본자료를 파악함으로써 정확한 수집, 정리, 교육, 전시를 유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자료는 실물, 표본, 사진, 모형, 문헌, 모사(模寫), 필름, 레코드 등 그

형태가 다양하고 자료 자체가 고유하며, 자료에 대한 기록이 복잡하다. 실물은 도서와는 달리 자명한 정보가 부족하고, 구조특징에 대한 해설 정보를 기술해야 하기 때문에 기록해야 하는 대상이 많아져서 정보의 정체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료는 수입 후에 보관장소의 변경, 대이, 보험의 변동, 전시, 보존 등의 운영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를 겪기 때문에 자주 변경되고 반복적인 기록을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박물관자료 분류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물관 관계자들은 박물관의 자료에 대한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형식 자체를 의문시해 왔으며, 이러한 생각은 박물관자료 관리의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등한시하게 되었다.

둘째, 분류에 대한 정보원으로서의 능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으로는 큐레이터의 다양한 전공으로 인하여 같은 자료에 상이한 용어가 사용되며, 명칭간에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 아래에 유사한 자료를 분류하는 것이다.

셋째, 자료가 속한 일반적인 유별(class)을 정하는 집단명(group name)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관리자가 유용한 방법으로 유사한 속성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즉, 다른 자료와 구별되는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물관 자료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지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처럼 분류체계 자체가 미비하고 통일성

이 없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특히 박물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를 상호교환하고자 할 때 더욱 크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각 박물관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분류 방식을 조사하여, 진산화를 위한 합리적인 분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박물관 1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한 61개 박물관 중 60개 박물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방법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명칭에 사용되는 용어와 명칭의 표기방식을 조사하였다. 용어는 일본식 한문과 개정된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박물관이 가장 많았으며(70.0%), 명칭을 다양한 순서로 표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재질-기법-문양-형태 순 표기(43.3%)가 가장 많았다. 이처럼 용어나 명칭 표기에 대하여 통일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자료가 다르게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박물관자료의 분류방식은 대분류에서 물질별로 분류하는 박물관이 가장 많았으며(55.0%), 용도별 분류(13.4%), 형태별 분류, 물질별+시대별 분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세분류의 방법을 조사한 결과 또한 물질별 분류(28.3%), 용도별 분류(23.3%), 시대별 분류(15.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경우 60개의 조사대상 박물관 중에서 13개 박물관(21.7%)이 자기 독자적인 분류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분류방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현재의 분류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분류상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21.7%), 분류항목이 적어서 검색에 어렵고(26.7%), 다박물관과의 정보공유가 어렵다(15.0%)는 의견이 지적되었다.

넷째, 국내의 박물관은 대부분 자료의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나(76.7%),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기존의 분류방식으로 전산화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86.7%). 또한 전산화를 위한 방향이나 의견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자료 전산화를 위한 유물의 분류방안을 설정하였다. 분류방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방안은 접근점을 가능한 한 많이 하기 위하여, 어느 유물이나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유물번호, 유물명칭, 수량, 시대, 수장연월일, 수장구분, 수장처, 출토지, 수입경위, 재질, 기법, 문양, 구조특징 등 13개 항목을 선정하여, 이 중에서 시대, 수장구분, 출토지, 재질, 기법, 문양의 분류를 실시하였다.

둘째, 기존의 분류방식은 대분류를 주로 물질별로 하였기 때문에, 주제별 검색이 불가능하고, 물질별 분류내에서 여러 가지 분류방식이 혼합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통항목에 장르를 추가하였다. 장르의 기준은 유물의 중요성, 전문박물관의 특성, 학문적인 특성, 유물의 비중 등을 고려하였으며, 고고품, 민속품, 도자기, 회화, 서적, 불교공예, 무구

류, 가구, 화폐 등 9가지로 장르를 나누어 각각의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방안에서 제시한 분류의 항목은 확장 가능하다. 공통항목의 경우는 분야별로 꼭 필요한 항목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어느 특정 주제분야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전문박물관의 경우는 장르를 더욱 세분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물의 분류방안은 국내 박물관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분류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수정, 확장하여 공통분류안을 보여줌으로써, 분류의 통일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분류방안은 일정한 포맷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추진될 박물관자료 전산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유용하다. 즉, 박물관자료의 기본적인 공통분류방법에 따라 각 박물관의 자체적인 세분류가 정해진다면, 기본분류법을 통하여 박물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체계적인 분류를 기반으로 박물관의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원은 효율적으로 재생산되어, 자료의 검색을 용이하게 하여 학술적·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분류방안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명칭 통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명칭에 사용되는 용어의 혼용과 표기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분류작성시에 유사한 자료가 서로 다른 장소에 산재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된다. 한편, 박물관 간의 상호의사를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물관원의 계속교육, 자질향상, 의사교환 등을 목적으로 한 공동

의 기구가 마련되어야만 서로의 입장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내외적인 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정보·문화센터로서의 박물관 기능을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전산화를 위한 분류방안은 표준화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방향 제시에 그쳤기 때문에, 앞으로 박물관자료 전산화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공통분류안의 상세한 사항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1993). 『박물관전산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김명옥 (1989). 『자료분류법』. 서울: 구미  
무역.
- 나선화 (1989). 박물관자료 전산화의 필요  
성과 문제점(요지):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위한. 『고문화』, 35, 95-101.
- 박인원 (1993). 『박물관전산화에 따른 유  
물의 항목분류와 코드분류』, 서울: 국립  
중앙박물관.
- 松澤員子 (1992). 標本資料檢索コードとして  
のHRAFコードの利用. 『國立民族學博物館  
研究報告書』, 17, 67-80.
- Abell-Seddon, B. (1988). *Museum  
Catalogues: a foundation for  
computer processing*. London: C.  
Bingley.
- Bierbaum, E.G. (1988). *Records and  
Access: Museum Registration and  
Library Cataloging.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9, 97-111.
- Chenhall, R.G. (1978). *Nomenclature  
for Museum Cataloging: a System for  
Classifying Man-Made Objects*.  
Nashville: American Association for  
State and Local History.
- Light, R.B., D.A. Roberts and J.D.  
Stewart. (1986). *Museum  
Documentation System: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London:  
Butterworths.
- MacDowall, D.W. (1978). *Coin  
collection: Their preservation,  
classification and presentation*. Paris:  
UNESCO.
- Orna, E. and C. Pettitt (1980). *Information  
handling in museums*. New York &  
London: K G Saur & Clive Bingley.
- Roberts, D.A. & R.B. Light (1980).  
*Progress in Documentation: Museum  
Documentation. Journal of  
Documentation*, 36, 42-84.